돌을 다듬어 문지방을 설치한 창덕궁의 월광문.

즐겨 보세요, 무심코 지나쳤던 우리 궁궐의 아름다움

임금들이 하루의 피로를 풀었다는 창덕궁 대조전 안마당(사진 위)과 상량정 꽃담.

한국의 고궁
신영훈 지음 | 김대벽 사진
도서출판 한옥문화 | 4만2천원

고건축 전문가 신영훈 목수의 섬세하고 따뜻한 궁궐 이야기 영상미 빼어난 사진 어우러져 전통건축문화 길잡이로 손색없어

"강녕전 바로 뒤가 왕비의 처소인 교태전이다. 교태전 대문은 양의문으로 강녕전 대문인 향오문과 그 시설이 다른데, 특히 문짝이 눈에 띈다. 향오문 문짝은 아주 투실한 판선형의 두짝문으로 둔중한데 여기문은 6짝으로 가볍게 구조하여 여인들도 힘들이지 않고 여닫게 했다. 이런 구조를 무심히 보면 그 따뜻한 배려를 모르고 말게 된다. 여인들을 위한 이런 씀씀이를 알아야 한국인의 심성과 한옥을 알게 된다."

경복궁 임금의 침전인 강녕전과 왕비의 침전인 교태전을 묘사한 글이 물흐르듯이 자연스럽고 친근하게 느껴진다. 목수임을 자처하는 고건축 전문가인 지은이가 우리나라 고궁을 바라보는 시선은 이처럼 섬세하고 따뜻하다.

그런 시선으로 쓴 책 <한국의 고궁>은 우리 궁궐 구석구석의 조형미를 오롯이 담아냈다. 서울에 남아 있는 조선의 궁궐인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덕수궁 경희궁 그리고 동궐의 후원, 종묘 등 모두 7곳, 빼어난 영상으로 담아낸 384컷의 사진에 만든 이의 생각과 살던 사람의 생활을 이끌어내 주는 글로 궁궐의 아름다움과 조영 의식을 천착했다.

요즘은 고궁마다 시간대를 잘 맞춰가면 안내자들의 해설을 들으며 편하게 고궁을 둘러볼 수 있다. 하지만 이 책으로 예습하고 궁궐을 돌아본다면 구석구석까지도 상세히 즐길 수 있다. '아는 만큼 보이는 법'이니까. 실제로 책장을 넘기다 보면, 무심코 지나친 고궁의 문화재들이 "아 그런뜻이 담겨 있었구나" 하는 발견의 기쁨을 만끽하게 하는 대목이 적잖다.

창경궁 정문인 홍화문은 궁궐의 대문으로서는 드물게 군왕들이 백성들과 만나는 장소로 활용됐다. 영조가 1750년 한양에 사는 백성들과 만나 균역에 대한 의견을 들은 게 대표적이다. 그래서인지 홍화문 문루를 자세히 살펴보면 비교적 간결하고, 평안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또 동궐(東闕)인 창덕궁과 창경궁 후원에는 아주 흥미로운 시설이 있다. 정자와 정자 사이의 통로에 걷는 이의 발자국을 따라 돌을 깔아 놓았다. 이것은 왕자들의 걸음 연습을 위해 만들어 놓은 시설이다. 팔자걸음을 걸으려면 먼저 가슴을 쫙 펴고, 턱을 당기고, 활갯짓 하며 걸어야 한다. 동궐의 후원은 이런 호탕한 걸음걸이를 배우고, 정자에서 아름다움에 젖어 책을 읽으면서 호연지기를 익히는 구실을 한 일종의 도량이었다.

그렇다면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종묘의 정전은 어떨까. 임금의 고(高)·증(曾)·조(祖)·부(父) 4대와 태조 등 나라에 큰 공덕을 세운 임금의 신주를 모셨던 이곳은 19간이나 된다. 거대한 규모다. 도심 한가운데 이런 곳이 있다는 자체가 믿기지 않을 정도다.

이 책에는 고궁에 대한 안내만 나와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 문화유산에 대한 인식 부족과 그 문제점도 실랄하게 지적했다. 창경궁의 경춘전은 대비의 침전이다. 그런데 내부를 보면 완전히 트고 전체를 마루로 깔았다. 일본인들이 이렇게 변형한 것이다. 지은이는 "마치 일본 순사들의 무술도장 같은 분위기다. 무엇이든 복원하기를 좋아하는 문화재청이 왜 이곳만큼은 원형을 복원하지 않는지 이해가 안간다"고 꼬집는다.

현재 빈 공간도 많고 규모도 커 보이지 않는 우리 궁궐이 원래 그랬던 건 아니다. "1915년 산업을 장려한다고 전각을 헐어내고…" "1918년 간특한 무리들이 창덕궁 내전에 불을 질러 타버리자 경복궁의 침전을 옮겨 다시 짓는다고 자경전 일곽을 제외한 내전을 헐어내는 바람에…" 등에서 짐작할 수 있듯, 고궁에도 일제 야만의 흔적이 생생하다. 1990년대부터 본격적인 복원이 이어지고 있지만, 총독부 따위를 들어앉혀 오히려 문화적 열패감을 반증한 저들의 빗나간 행태가 새삼 가엾다. 이 대목에선 요즘 한창 독도문제로 인한 반일 감정이 더 솟구치는 것 같아 안타깝기 그지없다.

책 중간중간에 멸실된 전각 형태를 직접 펜으로 그려 넣은 궁궐 배치도. 궁궐의 소재와 전각의 위치 명칭 연혁 등을 수록한 '궁궐지(宮闕志)'를 토대로 현재 남아 있는 것과 사라진 것을 표시해 궁궐들의 원래 규모가 현재처럼 옹색하지 않았다는 점을 보여 준 것은 이 책의 큰 친절이다. 갖고 다니기엔 다소 무겁지만 분철해서 가고자하는 궁궐에 들고 간다면 더없이 훌륭한 궁궐 안내서가 될 것 같다.

김주일 기자 jikim@buddhapia.com

경복궁 자경전에서 바로본 강녕전과 교태전 일곽. 지붕너머로 인왕산 줄기가 보이는데 서로 잘 어우러져 보기가 좋다.

외부로 벽체를 구조하지 않고 전체를 개방하고 문과 창을 달아 채광이 좋은 경복궁의 사정전.

전문가 서평

경제전쟁시대 이순신을 만나다
지용희 지음
디자인하우스 펴냄 | 9천원

드라마로 인해 이순신에 대한 열풍이 다시불고 있다. 기업에서도 21세기 무한경쟁 시대의 생존전략을 이순신에게서 찾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유비무환의 자세와 위기관리능력, 솔선수범과 인간애에 바탕을 둔 리더십, 용기와 결단, 거북선을 개발한 창의성, <난중일기>를 남긴 기록정신, 정보수집과 활용 능력, 탁월한 전략과 전술 등은 오늘날 경제전쟁에서 이기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실제 성공한 기업과 기업인은 공통적으로 위에 열거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

이 책의 큰 주제는 '21세기 한국 경제 생존전략'이다. 하지만 이 책은 임진왜란의 전적지를 기행한 답사기와 <난중일기>를 비롯한 여러 사료를 토대로 쓴 이순신 전기, 지은이의 독특한 관점과 경영철학이 살아 있는 '이순신 경영학'이기도 하다. 특히 기업 CEO와 삼도수군 통제사로서의 이순신, 임진왜란과 지금의 경제전쟁, 군사전략 경영전략 등을 비교하며 읽으면 더 유익하다.

이순신은 전략의 원칙을 중시했다. 군사전략이든, 경영전략이든 원칙은 같다. 이것들은 시대가 변한다고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2,500년 전에 쓰인 <손자병법>이 오히려 새로움을 준다고 극찬하는 전략분야 전문가들도 있다. 이순신이 보여준 백전백승의 전략은 이런 점에서 경제전쟁 시대에 진지하게 되새길 필요가 있다는게 지은이의 생각이다.

불패신화 이순신 경영학

지은이는 우선 적이나 경쟁기업을 이기기 위해선 주어진 환경을 최대한 활용하고, 자신의 강점으로 상대방의 약점을 집중 공략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러려면 자신이 처한 환경을 면밀히 파악하고 자기의 강약점은 물론 상대방의 강약점도 정확히 꿰뚫어야 한다고 말한다.

지은이는 또 명량해전에서 보여준 불굴의 의지를 이순신의 으뜸 덕목으로 꼽았다. 이순신이 감옥에 있는 동안 원균의 조선 수군은 칠천량해전에서 궤멸하고 말았다. 남은 것은 12척의 배와 오합지졸뿐. 당시 임금 선조조차 이순신에게 해전을 포기하고 육군 대장이 될 것을 종용했다. 그러나 이순신은 오히려 "우리에겐 아직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죽을 힘을 다해 싸운다면 적의 진격을 막을 수 있습니다"며 선조를 설득했다. 명량해전을 승리로 이끈 원동력은 바로 이같은 불굴의 의지였다는 것이다.

이순신의 수군을 무적 함대로 만든 또 하나의 비결은 '신뢰'였다고 지은이는 강조한다. 백의종군 후 맨손으로 시작한 이순신은 왜군이 휩쓸고 간 폐허를 누볐다. 민심을 수습하고 패잔병을 모으기 위해서였다. 이순신이 나타났다는 말에 도주했던 패잔병이 모여들었다.

기업도 마찬가지 인 것 같다. 기업을 운영하다보면 때론 시련도 있고 좌절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얼마든지 극복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지만, 최후의 보루인 신용과 신뢰를 잃는다면 기업은 결코 다시 되살아날 수 없는 것이다. 다방면에 걸쳐 두루 통용되는 진리인만큼 기업가나 개인 사업하는 사람은 물론 일반인들에게도 꼭 권해보고 싶다. ■**안창운**(미래 창업연구소 이사)

의식이 깨어있는 분들께 드리는 글

(어리석은 분은 읽은들 무슨 뜻인지 모르니 읽지 마세요)

"UFO와 하나님의 실체" <천지창조의 비밀>에 대한 책의 광고를 10여 차례 게재한 취지의 설명입니다.

민족의 정서와 의식이란 그 밑바탕이 그 민족의 오래된 전통적 신앙과 종교적 관습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라 봅니다.
민족의 바른 정서와 바른 종교와 바른 의식(意識)의 전환운동이란 그 시대를 잘 간파하여 주어진 여건과 환경을 잘 인지함으로서 우리 민족의 의식(意識)이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잘 알고 대처하는 일입니다.
의식이 깨어 있는 사람들이 모여 옳고 합리적인 이론과 전통적으로 이어져 내려 온 바른 사상과 종교를 널리 홍보함으로서 민족의 깨닫기 운동이 자연적으로 전개되는 것입니다.
지금의 한국은 다(多)종교 사회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기독교(천주교)의 독무대라고 보아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천주교 교황이 서거하자 마치 우리의 國父가 서거한 것보다도 더한 뉴스의 독무대는 민족의 주체적 의식이 망각된 채 사대주의 신앙으로 이끌고 있었습니다.
깨닫기 운동이란 바로 전 인류가 최종적으로 가야할 지표이며, 이 길은 동양의 대표적인 종교들이 설파한 일입니다. 미물까지도 널리 사랑하고 공경하는 것이 보살의 마음인데 어찌 사도(邪道)들이라 하여 내팽개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제도하고 바르게 이끌 사람들은 불교인뿐만이 아니라 바로 우리 이웃에서 헤매고 있는 우리들의 친척이며 형제들인 기독교(천주교)인들입니다.
바른 이치를 바르게 알려 주는 것이 수행자의 옳은 행위이며 자비 정신이므로 그들을 가련하고 측은한 마음에서 그들을 바르게 이끌고 더 나아가 우리의 전통과 교권수호의 여러 가지 차원에 있는 것이지 결코 남의 신앙을 비방하거나 헐뜯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바른 법도 널리 알리지 않으면 아무 쓸모가 없는 것이요, 비록 잘못된 것이라도 항상 쓰고 있으면 타성이 붙어 그것이 진리인 줄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깨닫기 운동이란 바른 법을 널리 홍보하고 깨달음의 길을 몸소 체험하고 실천하는데 그 뜻이 있는 것인데, 이것이 어찌 성현의 가르침이 아니라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천지창조의 비밀**>을 널리 홍보하고 읽게끔 하는 그 자체가 포교이며, 많은 노력과 자금을 들이지 않고 종교 간에 갈등과 다툼 없이 과학적인 방법으로 자연히 교화가 되리라는 생각에서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신도는 전 종교인의 과반수(過半數)가 넘고 천주교인도 4백만이 넘는 지금의 시점에서 정치 경제 사회 교육 의학 예술 등 각 분야에 있어 지도급 인사들 70%가 기독교인들이라는 통계가 나왔으므로 사회는 그들의 논리에 좌지우지됨은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불교인은 몇%일까요? 10%도 못되는 현실에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몇 천억이 아니라 몇 조(兆). 우리나라의 전 예산을 퍼붓는다 해도 기독교의 교세를 역전시키기는 어려운 일입니다. 일부 스님들은 아직도 시대의 흐름을 모르고 신도가 줄어 폐사 위기의 사찰이 많은데 지금도 대형 사찰과 거대한 불상을 조성하기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절이 크고 불상이 크면 영험한 부처님이 계신가요? 불교계 신문의 광고에 나와 있는 많은 사찰 매매는 무엇을 뜻하나요. 신도가 없으면 한 줌의 재가 된다는 것을 모르니 아무리 큰 절을 짓고 불상을 크게 만든들 무슨 공덕이 있겠습니까?
<**천지창조의 비밀**, 김종성 씀>을 日刊紙에 꾸준히 광고하여 많은 사람들을 읽게끔 한다면 불교인은 자긍심에 개종하는 일이 없을 것이며 무종교인은 기독교(천주교)로 가는 일이 없을 것이며 기독교인들도 비논리적인 성경의 내용을 알게 되므로 스스로 자각의 소리에 귀를 열고 깨달음의 종교에 귀의할 것입니다.
싸우지 않고 교화하는 방법, 종교전쟁이 없이 교화하는 방법은 메스컴을 통한 교리의 홍보입니다, 이것이 지혜가 아닐까요. 성현의 가르침이 <깨닫기 운동>이라는 것을 알고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범민족 깨닫기 운동모임> 임원 일동
회장 **김 도 기**(관음사 주지)

동참하실 분 :
농협 751025-51-021224 (예금주 : 김 팔 영(도기))
(054-633-0108, 010-2465-1357)